

# 우간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241천km <sup>2</sup>	GDP	210억 달러(2012년)
인구	35.6백만 명(2012년)	1인당 GDP	589달러(2012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ew Uganda Shiling (NUSh)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2,506(2012년)

- 아프리카 동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지리적으로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DR콩고와 접경하고 있음.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IMF와 World Bank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기반 구축, 꾸준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우간다는 최대 종족인 부간다(Buganda), 이테소(Iteso), 바로가(Basoga) 등 34개 종족과 가톨릭교, 기독교, 회교 등 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현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 국경 지대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단, DR콩고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연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 지속

- 요웨리 무세베니 (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용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2008년에는 10% 대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FDI 감소 등으로 4.1%로 크게 둔화되었음.
- 정보통신산업, 금융산업의 호조, 부자갈리 (Bujagali) 수력발전 댐의 완공 등에 힘입어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2%로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는 FDI 유입 증가로 5.9%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공공 부문 투자 감소, 유로존 침체의 영향, 고금리로 인한 민간 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5.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중앙은행의 이자율 하향 조정에 따른 투자회복으로 건설, 수송, 통신, 금융 부문이 활기를 되찾아 경제성장률이 5.7%로 상승할 전망이다.

#### □ 취약한 세수기반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과 각종 개혁 추진으로 지출이 증가되고 있어 적자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에는 2011년 2월로 예정된 대선과 총선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4.7%로 전년대비 크게 확대된 바 있으며, 2011년에도 취약한 세수기반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를 기록하였음.
-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2%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절반 수준임. 에너지 산업 부문의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12년에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제성장률	10.4	4.1	6.2	5.9	5.1
재정수지 / GDP	-1.9	-1.7	-4.7	-4.3	-3.5
소비자물가상승률	12.1	13.0	4.0	18.7	14.0

자료: IMF, EIU.

#### □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두 자릿 수 물가상승률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에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와 수단 남부지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3.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27.2%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풍년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4%까지 낮아졌으나, 2011년에는 경제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한데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18.7%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우간다중앙은행(BOU)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금리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1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 경제 구조와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낙후된 도로망, 부족한 송배전시설 등 경제 인프라 취약

- 세계은행은 '우간다 국가경제보고서'에서 규제완화와 같은 경제정책만으로는 현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도로 건설과 전력 확충 등 경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음.

- 우간다는 인도양에서 800km 떨어진 내륙국으로서 케냐의 몸바사(Mombasa)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등 수출항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도로·철도망이 낙후되어 현재 물류 수송의 90% 이상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수송비도 인근국보다 현저히 높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013년 3월 4개 도시(Kigumba, Masindi, Hoima, Kabwoya)의 총 135km 구간을 포장하는 도로 개선사업에 총 1.4억 달러(미국, 우간다 정부 분담)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였음.
- 전력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 인구의 약 3~5%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력수요가 매년 약 6% 증가하여 초과수요량이 최대 발전 전용량의 50%를 초과하는 등 전력 부족이 심각하여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크루아마(Kruama) 댐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주자인 노르웨이의 Norpak Power사가 계약이행보증금 인상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전력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 세계은행은 2011년 6월 우간다 남서지역의 전력 공급 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개발협회(IDA) 용자 제공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에는 우간다 14개 지방도시의 공공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지방인프라개발지원(USMID, Uganda Support to Municip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지원을 승인함.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석유 매장량

- 앨버트(Albert) 호수 근처의 리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에서 2006년 매장량 7~10억 배럴, 일산량 3만 배럴의 달하는 24개 이상의 유전이 발견되었음. 현재 아일랜드 Tullow사, 프랑스 Total사,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우간다 정부의 승인 하에 공동 개발하고 있음.

-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간다는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에 이어 사하라 이남 지역 제 4위 산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유공장 설립과 인도양에 이르는 송유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정보통신산업의 빠른 성장세

- 이동통신시장은 시장 자유화와 함께 5대 통신사(MTN Uganda, Zain, Uganda Telecom, HITS Telecom, Warid)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995년에 2천 명에 못 미쳤던 우간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8년에 8백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1,600만 명을 돌파하였음.
- 인터넷 시장도 InfoCom사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4년까지 10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 100명 중 13명 수준을 기록함.

#### □ 동아프리카공동체 공동시장 규약 발효 등으로 역내 국가간 교류 확대 전망

- 2010년 7월 1일부터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공동시장 규약이 발효된 이후 EAC는 5개 회원국(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간의 단일 통화 도입, 관세 인하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EAC는 2012년 말부터 단일통화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일통화가 도입되면 역내 무역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4월, EAC는 그동안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오던 시멘트, 설탕, 쌀, 밀 등 일부 품목을 기타 품목과 같이 25%로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다. 정책성과

#### □ 경제개혁 노력으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

- 지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경제정책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우간다는 1986년 무세베니 대통령의 집권 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아프리카 개혁 모범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음.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국제 원조를 근간으로 인프라 개발과 장기 경제회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세계은행과 서방 원조국이 진행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1987년 5월 '경제회복프로그램'(Economy Recovery Program: ERP)을 시작으로 통화개혁, 변동환율제 도입 등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도입이 근간으로 추진되었음. 현재는 각종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통한 FDI의 유입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총 420억 달러 규모의 2010~15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을 시행 중임. 정부예산으로 2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170억 달러는 과학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민관 합작 프로젝트(PPP)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 해외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FDI 증가 추세

- 정부의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2011년 FDI 유입액은 8억 달러로 2008년 7.3억 달러에 비해 9.6% 증가하였음.
  - 우간다 투자청(UIA)은 외국인투자유치로 착수한 6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약 6,23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추산함.
- 주요 FDI 대상 분야는 유전 개발, 농수산물 가공과 서비스 부문이 주축이며, 정부는 향후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임.
- 최근 정부가 발간한 지질광물조사 보고서(geological survey)로 우간다 광물자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레바논, 인도, 중국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삼림과 광물자원 개발에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 '2012 석유법안' 통과로 석유생산량 증가 전망

- 2012년 11월 그 동안 의회에 계류 중이었던 '2012 석유법안(탐사개발 생산 분야)이 통과되어 13개 광구에 대한 사업허가권 입찰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석유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간다 원유매장 가능지역인 17개 광구 중 2007년도에 4개 광구만 개발 허가되었으며, Tullow사, Total사, CNOOC이 시추한 87곳 중 76개소에서 원유가 발견되어 87%의 높은 탐사 성공률을 보인 바 있음.

## □ 전력수요에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 우간다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중임.
- 우간다의 전기 생산력은 약 1,000MW로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구증가와 경제 발전 등을 감안시 수요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 이후 빅토리아 호수 수위 하락으로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 우간다는 전력부족 대안으로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법을 마련하여 2008년 6월 국제원자력발전기구 (IAEA)의 기술협조를 추진한 바 있음.

## 3. 대외거래

###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 주변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륙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운송과 화물비용 부담,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만성적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의 감소와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따른 수입 가격의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산업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며 적자규모도 다시 확대되었음.
- 2011년에도 자본재 수입 증가가 주요 수출품인 아라비카 원두의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2.9%로 전년 대비 다소 확대되었음. 2012년에도 아라비카 원두의 생산·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낮아 수출 수입(收入)증가에 한계가 있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 상 수 지	-1,314	-1,251	-1,860	-2,276	-2,710
경 상 수 지 / GDP	-8.3	-7.8	-10.9	-12.9	-12.9
상 품 수 지	-1,835	-1,589	-2,376	-2,679	-2,736
수 출	2,208	2,327	2,164	2,576	2,733
수 입	4,043	3,915	4,540	5,255	5,469
외 환 보 유 액	2,301	2,995	2,706	2,617	3,169
총 외 채 잔 액	2,594	3,850	3,955	4,623	5,187
총 외 채 잔 액 / GDP	17.7	22.7	23.0	27.5	26.7
D S R	4.5	2.5	6.2	3.8	4.2

자료: IMF, EIU, OECD.

- 2013~17년은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본재 수요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두 자릿 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17년에는 석유 생산 증가에 힘입어 수출 수입(收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FDI 유입확대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아울러 원예, 식품가공, 관광 부문의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말 23억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2012년 말 32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수입(收入)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3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무세베니 집권 정치안정 지속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개 종족들 간의 분쟁, 이디 아민(Idi Amin)의 폭정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1986년 현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5년 서방국가들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 집권당인 국민저항운동(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이 일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내외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정치 안정, 경제성장, 사회적 생산기반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망을 얻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번의 대선에서 연이은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2011년 물가상승에 반발하는 시위 발생하였으나, 재발 가능성 미미

- 2011년 4월에 수도 캄팔라에서 물가상승에 반발하여 야당 주도로 군중이 시위(Walk to Work)를 일으켰음. 식품,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일터에 걸어가지는 취지의 비폭력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야당지도자 베시게(Besigye)가 총상을 입고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향후 재발 가능성이 미미한 데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전체 군·경찰 병력 통솔권을 장악하고 있어 시위가 재발할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 군중시위로 발전하는 등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국민 노동력 부족

- 총 노동인력 중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최근 도시화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인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에이즈 등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 곤란 등이 낮은 생산성을 초래하고 있음.

-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3에 의하면, 우간다의 기대 수명은 54.5세이며, 18세 이하의 젊은 층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으로 인해 성인 사망률이 높은 데에 기인함.

#### □ 다양한 종족과 종교 세력 분포

- 우간다는 다양한 종족과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부간다(Buganda), 이테소(Iteso), 바로가(Basoga) 등 34개 종족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가톨릭 42%, 개신교 42%, 회교 12% 등 다양함. 이 같은 종족·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그동안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한편, 최대 종족인 부간다족의 베티 캄야(Beti Kamywa) 의원은 2009년 5월 우간다 연방동맹(UFA)를 설립하고 부간다족의 정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2011년 대선에 출마한 바 있으나, 미미한 지지율에 그침.

#### □ '주님의 저항군대' 소탕 실패로 치안 불확실성 가중

- 우간다 정부군과 '주님의 저항군대'(The Lord's Resistance Army: LRA)간의 내전은 지난 20년 이상에 걸쳐 치안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조셉 코니(Joseph Kony)가 이끄는 LRA는 우간다 북부 지역과 수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살해하고 수 천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여 외국인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정 불안을 초래하여 현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2006년 수단 정부의 중재로 정부군과 반군 간에 주바(Juba) 평화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코니에 대해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2008년 12월에 수단, DR콩고, 우간다 정부군이 합동으로 벌인 LRA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LRA의 보복 공격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치안이 불안한 실정임.
- 코니를 체포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견한 100명의 군인과 우간다군을 주축으로 하는 3천 명 규모의 아프리카연합군(AU)이 수색활동을 펼쳤으나, 코니가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반군에 점령되면서 2013년 4월 아프리카 연합군은 활동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치안문제의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음.

- 미 정보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는 2013년 3월 발표한 세계위협 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에서 취약한 거버넌스(governance), 종족간 분열, 반군활동의 성행이라는 만성적인 사회 불안을 이유로 우간다를 2014년 위협한 국가군(14개국)에 포함하였음.

### 3. 국제 관계

#### □ 서방, 중국과는 양호한 관계, 주변국과는 국경문제 등 갈등 지속

- 표면적으로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서방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음.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변국들과는 국경 지대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우간다의 수출항 역할을 하는 케냐와는 광산권과 관련하여 빅토리아(Victoria)호의 미깅고(Migingo) 섬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앨버트(Albert) 호의 루완지 섬을 둘러싸고 DR콩고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단, 르완다와도 접경 지역인 읍베(Yumbe) 지역과 카투마(Katuma)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DR콩고와는 UN이 2012년 11월에 발간된 전문가보고서에서 우간다 정부가 DR콩고 내 반군 M23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간다 정부는 반군 지원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우간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2000년 5월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sup>1)</sup>의

1) HIPC 이니셔티브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고채무빈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채무를 지속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완결시점에 도달한 데 이어, 2006년에는 IMF와 World Bank의 다자채무탕감 프로그램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sup>2)</sup>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은 바 있음.

- 한편, OECD 회원국의 주요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편이며,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액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국제 원조와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2. 10)	D1 (2010. 11)
OECD	6 (2012. 10)	6 (2011. 10)
S&P	B+ (2013. 4)	B+ (2012. 4)
Fitch	B (2012. 10)	B (2011. 10)

\* OECD 등급 원용

###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HIPC 이니셔티브의 완결시점에 도달하면 MDRI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해당국은 MDRI 프로그램을 통해 Decision Point에서 결정된 채무구제액 중 기 실시된 잠정채무구제를 제외한 잔여 전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년 3월 26일 (북한과는 1963년 3월 2일)
- 주요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992년)
-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2012년 교역규모는 1,600만 달러임.
  - 주요 수출품은 농약,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 축산부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 우간다 상품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표 4> 한·우간다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17,757	25,833	9,350	농약,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수 입	4,863	10,676	6,824	기호식품, 축산부산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2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5건, 1,652천 달러
  - 최근 대 우간다 투자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건씩 이루어졌으며, 투자금액은 56만 4천 달러, 93만 8천 달러를 기록하였음. 주요 투자업종은 농·임업·어업, 도·소매업 등임.

### V. 종합 의견

-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저소득국인 우간다는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지속되는 치안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기반과 정부의 꾸준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힘입어 연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1986년 출범한 무세베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아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된 사회불안 요소인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치안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 원조와 FDI 유입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의 대외지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